다시 불붙은 '로스쿨 유치戰'

전남대-조선대 교수채용 등 '박차'

입학정원·지역 안배 등 난관 예고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립을 준비해온 전남대와 조선대는 '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두 대학 관계자는 ▲법 제정 지연에 따른 해당 대학들의 불안감 해소 ▲법대(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이나 장차 사법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들의 혼란 예방 ▲대학에서 시험이 아닌 학문으로서의 법학교육 가능 ▲법조인 선발 및 양성 시스템 개선 등을 기대했다.

하지만 ▲총 입학정원 ▲인가기준 완화 ▲고비용 문제 해결 ▲로스쿨을 유치하지 못한 (법과)대학에 대한 지원책 마련 등 논란이 됐던 사안들이 해결되지 않아 추가 입법과정에서 이를 둘러싼 진통이 계속되고 각 대학의 사활을 건 유치전도 본격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로스쿨 유치 '자신감'= 로스쿨을 설치하려는 대학은 최소 전임교원 20명 이상을 확보해야 하고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5명 이하를 유지해야 하며 전용 도서관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전남대는 최근 1~2년 사이 전직 판·검사 7명 등 16명의 교수를 새로 채용, 교수가 32명으로 늘어났다. 오는 2011년까지는 교수진을 5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법대 인근에 로스쿨 전용관을 새로 지을 방침이다. 현재 수십억원의 예산이 확보돼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남대는 10억원 가량의 장학기금을 조성한 데 이어 오는 8월부터 동문이나 지역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금모금운동을 펼쳐 모두 20억원의 장학기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조선대도 11명의 교수를 충원해 교수가 25명에 달한다. 조선대는 올 여름방학 중 연구능력이 뛰어난 교수 3명을 새로 뽑는 등 오는 2009년 개원에 맞춰 33명의 교수를 확보,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9명이 되도록 해 이 부문 만점을 받겠다는 방침이다. 조선대는 20억원을 들여 법학전문도서관을 갖췄으며 우수 학생 확보를 위한 장학기금으로 300억원을 조성해 놓았다.

국회 교육위 소속 안민석(열린우리당)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전남대와 조선대는 로스쿨 유치를 위해 각각 2억6천여만원과 433억3천여만원을 투입했고 추가로 각각 61억원과 123억원을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90개 대학 중 로스쿨 유치에 나선 40여 개 대학이 지금까지 시설·자재 확충과 교수 채용 등에 투자한 돈은 2천20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정원과 대학 선정 등 난제 수두룩 = 로스쿨 유치와 관련해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총 입학정원이다. 법안은 따로 로스쿨의 정원을 정하지 않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입학 정원을 정하되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로스쿨을 준비 중인 대학들은 국민에게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원이 3천 명 이상은 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현재 사법시험 합격자수와 비슷한 1천200명선을 주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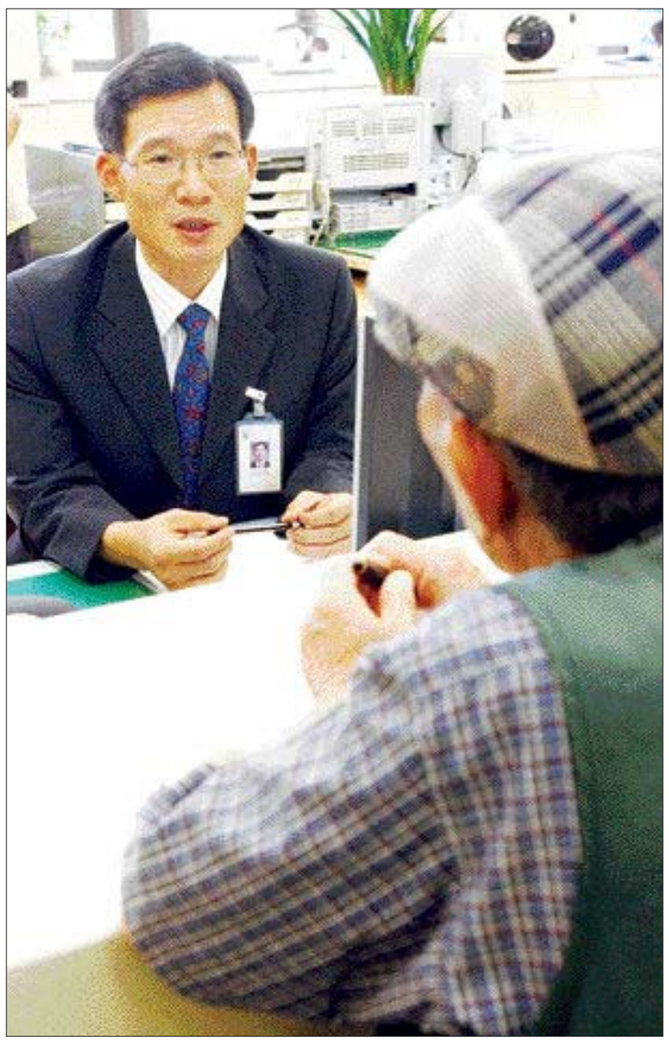
정병석 전남대 법대 학장은 "대학과 변호사협회에서 각기 자기 주장을 고수한다면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학별 입학 정원이 최대 150명으로 제한돼 전체 정원에 따라 몇 개 대학이 선정될지 여부도 좌우된다. 특히 로스쿨 유치 대학 선정은 각 대학별 준비 상태나 교육수준은 물론 지역 안배 등 정치적 판단까지 고려해야하는 복잡한 문제로 꼽힌다.

로스쿨을 준비 중인 전남대 등 12개 국립대는 변호사의 수도권 집중 현상 등을 막는다는 명분하에 시·도별로 1개교 정도 선정되기를 바라고 있고, 조선대·동아대·영남대 등 이른바 '지방 사립 3강' 역시 국립과 사립, 수도권과 지역 안배 차원에서 뽑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양동석 조선대 법대 학장은 "로스쿨 유치를 희망하는 대학이 실질적인 준비를 했다면 당연히 인가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석 전남대 법대 학장은 "수도권과 지역간, 국립과 사립간, 지역과 지역간 균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판사, 일일 민원체험 4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1층 '원스톱 민원창구'에서 제2형사부 강신중 부장판사가 법원을 찾은 민원인에게 소송절차 등을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다. 광주지법(법원장 김관재) 법관 44명은 이날부터 오는 9월까지 직접 현장에서 민원을 체험하게 된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전남대, 사시합격자 누계 전국 9위

조선대, 대법관·헌법재판관 배출

전남대가 배출한 사법시험 합격자 수는 정확히 집계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대학 측은 역대 누계로 보면 전국 대학 중 9번째로 많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전남대는 각종 고시 합격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한 1981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203명이 사시에 합격했다. 2001년 15명·2002년 20명·2003년 12명·2004년 15명·2006년 20명 등 최근 5년 동안 해마다 10명 이상의 합격자를 배출했고, 특히 지난해에는 전국에서 8번째로 많은 합격자를 배출했다.

조선대는 지방대 최초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을 배출하는 등 개교 이후 지금까지 150여 명의 사시합격자를 배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태종기자 hwangtae@

법인카드로 유흥비 결제

'간 큰' 공무원들 적발

전남도, 장성군 감사

업무추진비만을 결제하도록 되어 있는 법인카드를 사용, 노래방과 단란주점에 드나든 공무원들이 적발됐다.

전남도는 4일 장성군에 대한 최근 종합감사 과정에서 1개 과에서 사용하는 법인카드 1장이 지난 2년간 5차례에 걸쳐 노래방과 단란주점 비용 60여 만 원을 결제하는 데 사용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해당 과 직원들은 업무가 끝난 뒤 회식을 하는 과정에서 장성과 광주 등지의 노래방이나 단란주점을 이용한 뒤 법인카드로 비용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관공서는 실·과별로 업무추진비를 결제할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장성군의 경우 월 평균 사용액은 100만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같은 과의 전·현직 직원들이 2년간 5번에 걸쳐 노래방이나 단란주점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회식자리가 끝난 뒤 과 직원들이 함께 노래방에 간 비용을 무심결에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총 사용금액은 많지 않지만, 법인카드로는 유흥비를 결제할 수 없다는 원칙을 어긴 행위"라며 "관련 직원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고 있으며,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광주경찰청 수사력 시험하나…

개청 10여일 전후

강력사건 잇따라

광주지방경찰청 개청을 전후로 수사력을 시험하듯, 강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4일 새벽 4시7분께 광주시 남구 봉선동 S편의점에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침입, 흉기로 종업원을 위협한 뒤 현금 6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앞서 지난달 27일 주월동 O편의점에서 발생했던 강도사건도 현재 미해결 상태다.

지난 2일 오전 9시30분께는 서구 쌍촌동 A원룸에 20대 남성이 들어와 B씨(여·22)를 성폭행하고 달아났다. 지난달 19일 새벽 2시께 광산구 쌍암동 C마트 앞 대로(大路)에서 일어났던 20대 여성 성폭행 사건도 미궁에 빠졌다.

이외 지난 2일 오후 2시께 남구 양림동에서 김모(여·46)씨가 오토바이를 탄 남자에게 현금 10만 원이 든 핸드백을 빼앗기는 등 날치기도 최근 10여 일 동안 5건이나 터졌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예언가 행세' 수억원 갈취 6명 적발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처럼 행동하며 현직 교사를 홀려 수억원을 뜯어낸 종교단체 신도 6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 서부경찰은 4일 특정 종교단체에 헌금하지 않으면 "가족들이 큰 화를 당할 것"이라고 협박, 2억3천여만원을 갈취한 D교회 신도 신모(여·37)씨를 공갈 등 혐의로 구속하고, 같은 교회 김모(여·28)씨 등 공범 5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신씨 등은 지난 5월11일 광주시 남구 진월동 J(여·42·광주 모 중 교사)씨 집을 찾아와 "집안에 액운이 끼었다. 가족들이 교통사고나 뇌출혈로 죽을 것"이라고 속여 4회에 걸쳐 억대의 헌금을 가로챈 뒤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신씨 등은 남구에 포교당(布敎堂)을 차려놓고 아파트 등을 돌며 "물 한잔 얻어 마시자"고 접근한 뒤, 앞일을 내다보는 것처럼 이야기하며 헌금을 요구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안현주기자 ahj@

나원참 〈7253〉 김종두

담양지역 복날 앞두고 개도둑 극성

쌍나팔

○…오는 15일 초복(初伏)을 앞두고 최근 담양지역에서 개(犬) 도난 사건이 잇따라 발생, 주민들이 대책 마련에 고심.

○…4일 담양군 대전면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새벽 1시께 병풍리 김모(여·56)씨의 집에서 기르는 개 2마리를 비롯, 6가구 15마리의 개(시가 225만원)가 차례로 사라졌다는 것.

○…절도범은 잠금장치가 없는 사육장과 인적이 드문 주택가만 골라 한밤중 훔쳐갔는데, 주민들은 "외부인이 다가오면 요란스레 짖던 개들이 아무런 소리없이 끌려갔다는 게 도무지 이상하다"며 고개를 갸우뚱.

○…견공(犬公) 수난은 매년 복날을 전후 되풀이되는 일로, 광주·전남 400여 곳의 보신탕집에서는 이날 평균 4만여 마리가 소비되는 것으로 추정.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 ↔ 전지
649,000
749,000
839,000
799,000
499,000
399,000
459,000
349,000
349,000
349